

중소 화학기업 생산 활성화 지속

기업은행, 2002년 10월 ... 중소 제조기업 생산지수 상승

2002년 10월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지수, 수주동향 등 지표상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.

기업은행(행장 김종창)이 최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160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<10월 중소제조업 동향조사>에서 생산지수는 2001년 10월에 비해 8.0% 상승한 101.4로 9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.

업종별로 △화합물·화학제품 18.3% △비금속광물 18.1% △자동차·트레일러 15.6%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. 반면, 전기·전기변환장치(-7.4%)와 섬유제품(-5.7%) 등은 하락했다.

수주는 9월에 비해 <증가했다>는 기업 비율이 31.4%로 9월(27.2%)에 비해 늘어난 반면, <감소했다>고 응답한 비율은 9월(23.4%)에 비해 줄어든 21.6%로 나타나 전반적인 수주가 늘어났다.

고용은 <생산활동에 비해 여유인력이 있다>고 응답한 기업비율이 2.7%에 불과한데 비해 <인력이 부족하다>고 응답한 비율은 24.2%로 7개월 연속 20%를 상회하고 있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설비투자는 <10월에 설비투자를 실시했다>고 응답한 기업비율이 9월에 비해 소폭 증가한 19.4%로 나타나는 등 8개월 연속 2001년 설비투자기업 비율 평균(16.5%)을 넘어 중소 제조기업의 설비투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 지속됐다.

자금사정은 2002년 6월 이후 전월에 비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원할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11/26>